

# '2019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2.26	대전MBC 대회의실	6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신성철 위원장, 김경희 위원, 이용원 위원, 정대식 위원, 김종남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최기웅 편집부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13	5	-	-	18	-	1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9	-	-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23건	
교양	TV 특강 : 방송 중 소음 거슬러	철저한 사전모니터로 고품질 음성과 영상 제공. <19.2월 조치>	'19.1월
교양	시사플러스 : 시민의 의견, 인터뷰 수용	지방의회 해외연수 시민 인터뷰 삼입 (2/11). <19.2월 조치>	'19.1월
교양	생방송 아침 : 명절과 가족의 의미 재조명	명절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초대석 진행 (1/20) <19.1월 조치>	'19.1월
보도	시시각각 : 다양한 패널과 출연진 구성 요구	금강보의 운명 (2/10), 3월 분양 상대도안 (2/17) 다양한 패널 운영 <19.2월 조치>	'19.1월
보도	과학기술보도 늘려야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이템 방송.(2/4) <19.2월 조치>	'19.1월
보도	대전 트램에 대한 다각적 보도 요청	대전시 '트램으로 인한 교통혼잡, 기우' (2/8), 대전 트램, 우려와 변화의 가능성 (2/12) <19.2월 조치>	'19.1월
보도	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 보도 요청	초 미세먼지 주의 등, 2월 8건의 보도, 3월 7건의 보도(3/7일 한) 총, 15건 <19.2,3월 조치>	'19.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부위원장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울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b>변 동 사 항</b>					
-	-	-	-	-	-

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 개정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권고 수용

○ 개정 일시 : 2019년 2월 20일

라. 시청자위원 공개모집 실시

○ 2019년 4월 30일로 만기가 도래하는 위원에 대한 시청자 위원 공모

○ 개정된 운영내규에 따라 실시

○ 공모 개시 일시 : 2019년 2월 28일 (홈페이지 및 자막 홍보)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b>방송편성 : 3월 개편</b></p> <p>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공영방송간의 경쟁, 타 방송사들과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3월 개편에 대한 기대가 큼.</p> <p>오랫동안 해온 TV특강, 가요프로그램 등 공영방송으로 적당한지 고민할 필요. 지역의 색깔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고민해야할 듯, 개편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 되었으면 함. (양홍모 위원)</p>	<p>2019년 봄 개편(3/17)은 전체적으로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시청자의 콘텐츠가 방송이 되는 &lt;크리에이터 성장기:독전(獨戰)&gt;을 새롭게 선보이고 시민주권을 주제로 한 &lt;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gt;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고, 완성도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lt;TV특강&gt;은 폐지하였습니다.</p>	○		
교양	<p><b>교양 : 시사플러스 2019. 2.18. 함께 가요 경비원 해고를 막는 사람들</b></p> <p>출연자가 세종시 소담동을 대전시 소담동으로 잘못 읽었으나 자막은 맞게 나가, 세심한 주의 필요. 중간과 마지막에 진행자가 나오는 것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레이션이 목소리 톤이 너무 강해서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느낌.</p> <p>경비원 감축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의 입장을 좀더 전해 주는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단지 감축반대를 시청자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처럼 보임. 대전시의 사례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대전·충청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높여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부남 위원)</p> <p>세트장이 강렬하고 아름답다.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및 인권 문제에 대하여 알찬 구성으로 잘 짚어 주었음.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p>	<p>시사플러스는 그간 대전, 세종, 충남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자리 지켜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봄 개편에서는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으로 시사플러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원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 프로그램. 예지고등학교 관련 만학도의 모습을 통해 배움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자세한 부연설명을 과감히 생략한 편집으로 인해 무언가 강렬한 느낌이 좋았음. (김은주 위원)				
교양	<b>교양 : 아침이 좋다 2019. 2. 14. 한국의 맛을 찾아 청양</b>  봄이 오는 과정에 된장과 봄나물 주제가 좋았음. 나레이션의 목소리 아침에 활기를 더해주었으나, 출연자가 긴장하다보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 (권부남 위원)	출연자에 대한 부분은 연출에 한계가 많은 부분이라서, 방송에 익숙치 못한 출연자의 경우, 제작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작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사전 검토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교양	<b>교양 :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b>  로컬리티가 가장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우리 동네, 작은 이야기가 좋았다. TV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양선희 위원)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몬제의 개념으로 제작중이며, 최초 10회 분량제작과 방송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15회분을 제작 중입니다.	○		
교양	<b>모든 것 연구소, 올랩 2019. 2. 12</b> <b>한국인이 사랑한 클래식</b>  음악, 클래식을 TV로 보여주는 것이 신선했고, 김갑수, 등 출연자가 좋았음. 현장에서 연주자들의 실제 생활과 음악에 대한 집념 등을 잘 파헤친 것이 시청자의 호응 얻음. (송길현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어린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개편이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노정렬의 시사각각 2019. 2. 3.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25년 까지의 과제는?</p> <p>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하면서 중간중간에 요약정리를 잘해줘서 과거의 토론 프로그램보다 진일보한 느낌. (김은주 위원)</p>		○		
보도	<p>보도 : 노정렬의 시사각각 2019. 2. 17. 3월 분양 도안상대 537대1 경신 할까, 세종 대전 도시철도 실현되 나</p> <p>패널 소개할 때 패널 이름과 소속 자막이 안 나와서 의아했는데, 조금 있다가 패널이 말을 할 때에 자막이 삽입. 소개할 때에도 자막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으로 판단. (김은주 위원)</p> <p>패널 소개시, 자막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듯. 정가 이슈, 여야당의 의원이 한 분씩 나오는 것이 흥미 제공, 고정하거나 이러한 포맷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에 유익하다는 생각. (양선희 위원)</p>	<p>노정렬의 시사각각은 시사토론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뤄낸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형태가 아닌 토론형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인력은 부족하지만, 이슈의 참신성으로 극복할 생각입니다.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갈 문제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뉴스데스크 2019. 2. 1.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p> <p>마지막 장면에서 기자의 스튜디오 클로징은 어색한 구성으로 판단됨. 어떤 의도인지 의아했음. 현장 리포팅도 아닌 자료화면 배경 리포팅은 기자의 등장을 위한 구성처럼 보여 상당히 어색했음.(양선희 위원)</p>	<p>기자의 의도와 제작결과물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을 이용하거나 스튜디오 리포팅의 경우 더 깊은 고민으로 고품질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p>뉴스데스크 2019. 2. 4,5. 설 연휴, 교통상황 정보 뉴스</p> <p>생동감 있게 진행되었고, 많은 정보 매체가 있지만, 뉴스로서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보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뢰감 상승. (양선희 위원)</p>	<p>저희 제작진도 연휴기간의 교통상황의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견해가 저희와 같아 잘 보도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향후 명절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좀 더 활용하겠습니다.</p>	○		
보도	<p>뉴스데스크 2019. 2. 8,9,10. 대전방문의 해 관련 기획보도</p> <p>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송된 기획보도. 흥미롭게 보았지만, 의문은 타깃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 외부인들이 대전을 방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외부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필요. (양선희 위원)</p>	<p>2019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한 기획보도로 ①대전 알리기 시동, ②소확행 여행 최적지 대전, ③관광 인프라 변해야 산다를 방송했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콘텐츠 제공의 부분도 보다 고민하겠습니다.</p>	○		
보도	<p>뉴스데스크 2019. 2. 4.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시 확보 바꾸나</p> <p>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전시를 방문한 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후속 움직임에 대하여 소개되었는데 시의적절한 이슈 선택. 4차 산업혁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데, 자율자동차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던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 뉴스를 보니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법안만 30여개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갈 길이 먼 느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들과 함께 맞물려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지난 24일 대전을 찾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신기술</p>	<p>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포 후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집중조명하는 리포트와 지역기반형 R&amp;D 환경 조성 및 대전시와의 상생방안 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보도와 후속 진척사항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특구에 규제 완화지역을 만들고 법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 대전MBC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 진척 상황에 대한 보도 요망. (함진호 위원)				
보도	<p><b>4대강 관련보도</b></p> <p>4대강 보도와 관련, 우려되는 점은 단순 찬반 논란으로 보도물이가 되는 것. 4대강 관련 보 철폐는 환경부의 1년여에 걸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 이후 내린 결론이며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유된 내용인데,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자치단체의 주장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p> <p>단순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 대결만을 제시하는 것은 재고 필요.(양홍모 위원)</p>	4대강 보도 관련 공감하는 부분. 물 이용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의 사실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들이 이슈에 대해 판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보도	<p><b>보도 : 충남 지역의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보도</b></p> <p>대전충청지역에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1달이나 1년, 100일 등 주기적인 후속보도 필요. 대형 사고는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고에 대한 뉴스만으론 재발 방지가 어려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약속된 것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요.(양홍모 위원)</p> <p>제이티비시 세월호 보도의 장기화로 언론으로서의 가치 상승. 지역 대형 사고에 대한 이러한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양선희 위원)</p>	대형 사고의 경우 태안화력, 한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형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취재를 진행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이슈들을 짚어내겠습니다.	○		